

# 2011 DESD 세계시민 컨퍼런스 선언문

## Declaration of the Global Citizen's Conference on DESD 2011

2011년 9월 18일

세계 시민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자연 환경과 자원, 에너지, 인구, 식량뿐 아니라 빈곤, 평화, 인권,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이와 같은 지구적 사안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지역과 지구가 함께 마주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발안되었다.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지구적 규모의 사건 및 문제간의 연결고리를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운동에 솔선하여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DESD 세계축제포럼(DESD World Festival Forum)은 일본 정부와 함께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UN DESD(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제안하였고, 2003년에 DESD사업 이행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 사업이다. 이는 모든 교육과 배움의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통합하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2014년 일본에서 개최될 DESD 최종 회의가 세계시민에 의해 선도되는 진정한 ESD세계포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긴 여정의 뜻을 함께 올리고자 한다. 우리가 승선한 배는 산업, 공공 영역, 학계, 시민사회에 의해 확립되고 공유된 'DESD 세계시민 컨퍼런스'라는 선박이다.

2009년의 여정을 통해, ESD의 실행과 증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포럼과 구조설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우리의 사회적 임무인 풀뿌리 정책제안의 가치를 공유하였다.

2010년의 여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활발한 ESD 동료 간의 실용적인 정보 교환과 연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세계축제포럼의 개념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11년과 근래의 여정을 통해, 2014 DESD 최종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의 행동 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논의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국내운동이었던 세계축제포럼의 아시아 및 세계적 사회공동체로의 확대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올해 여정의 출발을 앞두고 있던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핵의 문제를 비롯하여 예상치 못했던 이번 재난의 다양한 정세들을 다룸에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ESD의 분쟁대비와 재해감소교육의 역할은 물론,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안정되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ESD의 목표를 포함한 ESD의 본질을 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든 동료들에게 우리의 여정은 재건노력과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DESD의 최종 해를 함께 바라보는 이 선박에서, 우리는 지역적 다양성에 기반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ESD를 증진하는 메커니즘을 창조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는 DESD의 제안자이자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여정을 시작했다. 예측과 같이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재해위험 감소,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및 도시화, 문화다양성과 같은 ESD의 주요 테마에 대한 일본의 성취여부에 집중하였다.

UNESCO가 주최하는 2014 DESD 최종 회의의 형식과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우리도 곧 주최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우리 여정의 중요한 영역인 세계축제포럼의 이행계획 고안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간의 정책제안을 결의하고 사업들의 개시를 위한 새로운 노력의 시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출발이다.

전 세계 RCE들과의 연계, 일본 및 세계 UNESCO 협동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많은 NGO 및 NPO와의 독특한 협력관계, ESD를 위한 기업들의 전면적인 움직임, 주최도시 자발성 운동, 공동 IT 기술을 통한 ESD사례의 공유와 같이 우리가 이제껏 준비해 온 사업의 분야들이 심화되는 것과 더불어 UN, UNESCO, 일본정부 및 주최도시간에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고 '세계시민 컨퍼런스'라는 우리 함선의 선원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도모하자.